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올타리 밖 그것이기도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올타리 바깥에 있는 것이 그것이야.”
 학승이 말했다.
 “그것을 묻은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느 길을 말하는 것인가?”
 학승이 말했다.
 “대도(大道)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도(大道)는 서울 장안으로 통하고 있어.”

問 如何是道 師云 牆外底 云不問者箇 師云 問什麼道 云大道 師云 大道通長安

길은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 발로써 닦은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졌다. 길은 많은 길이 있다. 집으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 직장으로 가는 길 등. 작은 길은 큰길을 만나고 큰길은 더 큰길을 만나면서 길은 결국 서울로 통한다. 여행하는 나그네가 일단 길을 만나면 안심할 수 있다.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은 따라가면 곧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도 길이 있고, 학문에도 길이 있고, 선문(禪門)에

도 길이 있다. 길은 결국 서울에 도착하듯이 바른 길을 안다면 선(禪)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래서 인생은 곧 도이고, 도는 곧 선이고, 선은 곧 우주의 중심이다.
 조주 스님은 학승이 도(道)에 대해 묻자, 담장 밖의 길이라고 말했다. 학승이 못 알아듣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도(大道)를 묻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여전히 조주 스님은 도가 곧 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다. 다만 대도는 서울로 통하는 큰길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바로 도라는 것이다. 아하, 이거야말로 ‘달에 대추나무가 걸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먼지를 털고 부처를 볼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먼지를 털는 일은 없지 않지만 부처는 볼 수는 없는 거야.”

問 撥塵見佛時如何 師云 撥塵即不無 見佛即不得

먼지를 탄다는 것도 옳지 않다. 도대체 어디에 때가 묻고 먼지가 끼었다고 털고 닦을 것인가? 부처를 본다(見性)는 것도 옳지 않다. 역대 선사 중에 부처를 보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본단 말인가? 깨달음도 옳지 않다. 역대 선사들 중에 누가 깨달았다고 말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깨달을 것

인가? 모두 옳지 않다. 오로지 부처의 행만 필요하다. 지금 곧바로 부처의 행을 익혀나간다면 육조 스님이 좋아 할 것이고, 역대 선사가 칭찬할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병(病)이 없는 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4대(大)와 오음(五陰)이다.”

問 如何是無疾之身 師云 四大五陰

4대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다. 오음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말하는데 물질, 느낌, 생각, 작용, 식별이다. 곧 몸과 마음의 다섯 가지 작용을 말한다. 병들지 않는 몸은 있는 것일까?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의 대답은 그냥 평범한 이 시대 육신이라고 대답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치가 있다. 사대육신 그 자체는 원래 아프지 않다. 아픈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이다. 사대육신은 찢어져 피가 나도, 무너져 넘어져도, 불에 타도 말이 없다. 아픈 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대육신은 원래 병이 없는 것이다. 병을 만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육신이 병들었다 생각하고, 무너졌다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원래 몸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모두 마음이 지은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 (맛자미 니까야 26)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어느 때 맹자님은 군자가 마땅히 즐거워할 만한 즐거움 세가지를 논한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천하의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교육을 하는 것”이었다. 맹자님같은 대스승의 입장에서 마땅히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들었다. “남의 스승 되는 것을 삼가라.”
 아, 얼마나 남의 스승노릇 하는 것이 어렵기에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스승이 되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하셨던 분이... 나도 명색 선생의 입장에 서있는지가 십여 년을 훌쩍 넘다보니, 이 맹자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선생은 언제 선생이 되는 것일까? 발령장을 손에 들었을 때인가, 아니면 교단에 처음으로 올라섰을 때인가? 내 생각에는 학생들이 ‘교수님’, 혹은 ‘선생님’이라 불러줄 때가 아닐까 싶다. 김춘수 시인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러한 내 생각을 부처님께 적용시켜 볼 때, 그것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그분을 향해서 ‘부처님’, 혹은 ‘스승님’이라 불러주시기 전에 스스로 “나는 여래다, 나는 아라한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최초로 법을 펼치시기 위해서 찾아가던 사슴동산(녹야원)에서 다섯 비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비구들이여, 여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친구여’ 라고 부르지 말라. 여래는 아라한이며 바르게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다.”(일아스님 번역,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여래(如來, tathāgata)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신 분, 혹은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 부처님께서 장안하신 용어이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전에, 남이 나를 여래라고 불러주기 전에, 스스로 “나는 여래다”라고 선언할 수 없다. 아마도 있다고 한다면, “사이비가 아닌가” 의심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드시

알서 깨치신 분으로부터 깨침을 인가(印可)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인가해 주시는 분은 스승이고, 인가를 받는 분은 제자이다.

스승이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있기에 행복하다면, 스승이 없는 자는 또 얼마나 고독할까. 정말로 나는 이제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 것인가, 라고 부처님께서도 한탄했다는 경전이 있다 하지 않던가. 그러나 어쩌랴. 최초의 부처, 최초의 선구자가 담당해야 할 고독인 것을... 그 이전에는 아무도 바르게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었다고 해서, 교진여 등 다섯비구는 옛날처럼 ‘싯타타여’라고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부처님은 옛날의 싯타타가 아니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불사(不死)를 성취하였다. 나는 가르치리라. 그대들에게 담마를 가르치리라.”(위의 책) 자신 있게 스승이 됨을 자임하셨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학생들로부터 부단히 인정을 받아야만 스승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의 관념은, 내가 불사를 성취하지 못했고, 내게 담마(dhamma, 법)에 대한 자신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정합니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11’ (제880호)에서, “그런데 불교는 양보주의와 포기주의를 터부시하고 있다”는 오식(誤植)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양보주의와 포기주의에 터하고 있다”로 바로 잡습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8>

사상제-도제(道諦)

마음의 만성질환 치료약 ‘팔정도’ 제시

세 살 버터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한 번 들인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좋은 습관을 들여 여든까지 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습관은 보통 안 좋은 쪽으로 들어 있다. 나태함 신경질 욕설 무례 등과 같은 성격 문제들이 모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자아의식에서 발원한다.

특하면 신경질을 내고, 험한 말을 내뱉고, 남을 언짢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고착화 되고 마음은 점점 왜곡된 상태로 변해갈 가능성이 더 크다. 마음의 ‘만성 불치병’과 다를 바 없다. 일반인들의 이런 생활 속의 안 좋은 습관도 고치기 힘들게 하물며 도박꾼이나 마약 중독자는 어떠하겠는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그저 내뱉기 쉬운 말에 불과할 뿐 현실 속에서는 좀처럼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치료되지 않는 만성 관절염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상제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방법론이 바로 ‘도제(道諦)’이다.

도제는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으로의 길’을 안내하는 진리이자 방법론이다. 즉 불치병이라고 생각됐던 병에 치료약이 있다는 선언인 것이다. 그 약의 이름은 불치라 하면 잘 알고 있는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는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의 여덟 가지 항목을 가리킨다.

이 여덟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열거한 순서대로 수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팔정도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후관계 없이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교학적 해설에 의한 견해지일 뿐 팔정도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방법론임에는 변함이 없다.

팔정도의 수행법에 관해 <상응부경전(相應部經典)>에는 ‘갠지스 강을 비롯한 모든 강이 동쪽 바다를 향해 흘러 이 육과 대해(大海)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구가 팔정도를 수행하면 열반을 향해 나아가 이 육과 열반의 대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해 있다. 이처럼 팔정도는 열반으로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것 외에도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도제에 있어서도 고(苦)의 직접원인인 집(集)을 제거하는 것 외에 집과 고통 일으키지 않기 위한 마음상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여덟 가지 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고통의 제거가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고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인격전체를 건강하고 완전한 상태로 하기 위한 방법이다.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뇌를 계기로 최후에는 인격의 완성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日 龍곡대 불교학사 · 前 前 전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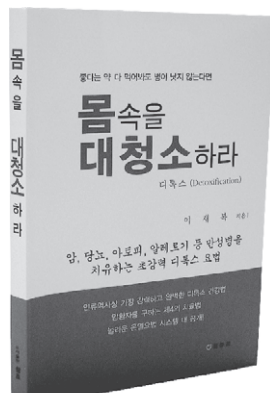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척추(냉직)를 쉽게 푸는 법 수록
-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 단침이 몽골몽골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짙~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리리 901 소백산수련원
- 책신청 : (054)637-9810**